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2사무 5,1-3
[화 답 송]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 2독서] 콜로 1,12-20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루카 23,35-43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73 입당 73	봉헌 주님 믿나이다 1 봉헌 주님 믿나이다 1	성체 166 174 성체 166 174	파견 주님 믿나이다 2,3 파견 주님 믿나이다 2,3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 24일)		대림 제 1주일(12월 1일)		대림 제 2주일(12월 8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허세실리아(홍숙)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구미카엘(창희)	이바로로(명국)	이베드로(기만)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신앙의 해를 마감하며

지난해 10월 11일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던 '신앙의 해'가 1년여의 여정을 거쳐 드디어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계속되는 일상적인 것인데, 교회는 굳이 왜? '신앙의 해'를 특별히 정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현재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신앙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세월에 비해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만 한편 지나친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인 우리는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재발견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중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신앙의 해'를 정하고 신앙 쇄신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며,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권력자와는 다른 왕 중의 왕이시며,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골로1, 16-17)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그분의 왕권에 순종하며,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속하게 하여 세상의 그릇된 세력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인인 우리는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위한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그릇된 사상이나 악의 세력에 맞서 끊임없이 참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본당에서도 '신앙의 해'의 취지에 따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영성부장을 중심으로 구역장님들과 많은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앙특강과 신앙체험수기공모, 성경 읽기와 성경필사를 권장했으며, 매주 화요일에 가톨릭 교리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신앙의 귀감이 되는 분에게 신앙인 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이 분께 작은 상을 마련하여 수여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의 해'는 오늘 폐막미사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은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적인 신앙쇄신을 통하여 늘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한편, 연중 제 34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봉사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오래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20대 청년들이 범죄 집단을 결성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더 많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 것이 한(恨)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그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명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생 동안 참회의 생활을 했고 마지막엔 장기기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기자가 사형 집행에 입회했던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참회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느님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 맡겨야 하겠지요.”

하느님의 도우심, 즉 은총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삶의 불만을 무고한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안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적은 권력을 부리고 힘을 쓰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봉사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누구나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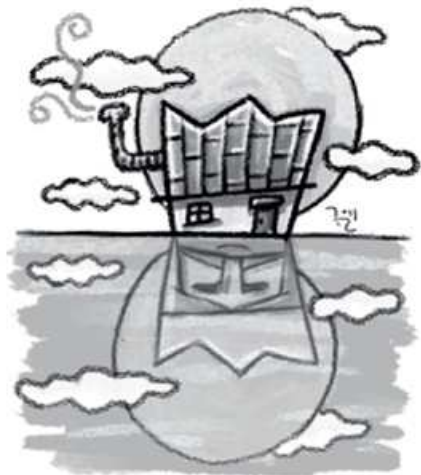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욕심... 이러한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이며 인도자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서 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봉사와 사랑을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42)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이 세상 빈민굴에 사는 나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받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글_마더 데레사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말씀의 향기

언제부터인가 음악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 들어가 풍금을 쳤고, 고등학교 때는 팝송에 심취해서 골방에 틀어박힌 채 기타를 치는가 하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클래식 음악이 좋아 음악 감상실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노래와 악기를 배우며 음악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하고 기타만 친다고 어머니한테 걱정도 많이 들었지만, 음악은 훗날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과 음악생활을 병행하면서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앙상블과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작은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악이 좋아 음악 속에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은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 음악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아름답지만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작곡되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쓰이는 성음악은,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요 영혼의 위로자입니다.

혼자서 하는 음악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 만들어내는 합창이나 합주는 우리의 신앙공동체처럼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내는 화음은 지상의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모든 단원들이 부단히 연습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 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감동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아마추어 음악가들은 전문 연주자에 비해 그 기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에 정성을 다해 연주하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연주할 때 정성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두 아들도 영향을 받았

는지 모두 전공 음악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프로 연주자가 된 아이들에게 저는 “테크닉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깃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 고 말해 줍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연주를 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저희 음악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이 되고 그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써 주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김태식 토마스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머무름

성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일이
새 생명을 경시하게 하는 주된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참된 사랑만이 생명을 보호할 줄 압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7항

가톨릭전례

성품성사

성품성사는 성직자들을 축성하여 그들이 성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사입니다. 성직자들 안에는 주교-사제-부제의 계급이 있습니다. 성품성사는 어떤 사람을 성직자들의 품계 안에 들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드시 필요합니다. 직무 사제직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당신 교회를 건설하고 인도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제직은 특수한 성사인 성품성사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1. 구원 경륜에서 본 성품성사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3. 사제직의 본질

사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신과 인간을 결합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의 진노를 풀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어 전례에 봉사하도록 따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은혜도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제직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다른 종교들의 제사와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느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또는 하느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행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봉헌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철저한 자기희생의 제사였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사제직의 본질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그들 몫의 유산이 되어 주셨으며, 고유한 예식으로 구약 사제직의 기원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예식을 통해 사제들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속죄를 위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539항)

죄에 물들은 인간은 하느님과 이웃들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중재하기 위한 사명이 사제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기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철저한 자기희생의 삶을 통해, 다시 말해 사랑과 봉사의 삶을 통해 사제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

그러나 구약의 사제직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사제직의 모든 예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곧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2-1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식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에게만 계승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증거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들에게 맡겨진 사제직을 “보편 사제직” 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로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546항)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 사제직도 반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4	216	38	348
헌 금	\$500	\$1,387	\$64	\$1,951

< 교무금 > \$2,440

조상희(12) 이세호(1-12) 정일양(11) 최옥경(10-12)
성태성(7-12) 김승희(11-12) 박진영(9-12)
장진혁(6-8) 김관수(7-9) 정창희(11)

< 성소후원금 >

정창희(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익명 \$1,000

< 대림초/꽃 > 김영순 \$50

< 트라이벨리 성전 건축 기금 마련 > \$3,512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11월24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부모님	정스텔라(애리)
	연	연옥영훈	하늘의문 Pr.
	연	모든 영훈들	상지의옥좌 Pr.
	연	유조형/오옥희	임안젤라(승주)
	연	유하비에르/베드로	임안젤라(승주)
	연	임석웅/박마리아	임베드로(장만)
	연	차예로니모(창섭)	익명
	연	김세실리아(순례)	전실베스텔 가족
	연	이요한(갑희)	가족
	연	이베드로(관종)	가족
	연	이요셉(혁중)	가족
	연	김제이슨(재성)	이요한 가족
	생	송미카엘(인근)	송아가다
	생	김스테파노/올리비아	전교부
11월26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 오늘의 간식은 육아오스딩/아가다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신앙의 해 폐막미사 : 오늘 교중미사  
신앙의 해 성경쓰기 노트와 아침/저녁/묵주 기도  
체크북을 봉헌하며 신앙상 수상이 있습니다.

◆ 2차 현금 안내  
오늘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성탄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2일(목) 저녁미사 후  
- 영어로 성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윤석 요한  
신부님께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 대림피정 안내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30 - 10:00  
12월 11일(수) 오후 7:30 - 10:00  
주제 :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강의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참가비 : 무료(간식 제공)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성탄봉성체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추수감사절 미사 및 친교  
11월 28일(목) 오후 5시에 미사를 드린 후 오후 6시  
부터 친교를 나눌 예정입니다.  
\* 음식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행사부장 정석준 요한 510-828-9972

1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1-2장**

|       |               |                       |
|-------|---------------|-----------------------|
| 1 구역  | 11월24일(일) 6시  | 유인웅 닷넷 맥              |
| 4 구역  | 12월14일(토)6시반  | 이주황 요한 맥              |
| 7-1구역 | 11월30일(토) 2시  | 파운더스 룸                |
| 8-1구역 | 11월24일(일) 5시  | 유춘성데레사/강루시아           |
| 8-2구역 | 11월17일(일) 6시  | UC Village Cross Rd.# |
| 10 구역 | 11월24일(일)12시반 | 교육관 106호실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사목회의 : 11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하상회 : 11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사제관 앞 #  
\* 요아킴회/안나회 : 12월 8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올해의 교우상 후보자 추천  
수상 내역 : 추천서 참조  
시상 : 12월 25일 성탄대축일 미사 중  
접수 : 후보 안에 있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까지 사무실에 제출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2월 1일(주일) 8시 미사 후, 교중미사 후  
\* 질의 응답 후,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10을  
트라이밸리 성전 건축 기금 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결산 및 행사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안국약교 소식

- 11월 30일 : Thanksgiving(휴강)
- 12월 7일 : 방학식/한국 전통 물건 소개하기  
북가주 협의회 주최 '교사 사연의 밤'
- 12월 14일 ~ 12월 28일 : 겨울 방학
- 2014년 1월 4일 : 개학